

영광군, 전기로 달리는 저상버스 첫 도입 운행

전남 군 단위 최초 '군민 발' 전기저상버스 도입 운행 사업비 7억원 투입...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기여 기대

영광군은 2월 7일 영광교통 차고지에서 강종만 군수, 강필구 의장, 최주태 영광교통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단위 최초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개통식 및 운행 행사를 시작했다.

군은 33대의 군내버스가 경유로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2050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하여 작년 2월 전기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 사업비 7억 원(전기저상버스 2대)을 투입하여 기반 설비를 구축하였다.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는 소음과 진동이 월등히 적어 출입구 높이가 낮고 경사판이 설치되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이 편리해지고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 대체차시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여, 향후 전체 군내버스를 전기저상버스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축산업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위해 '총력'

함평군이 축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함평군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49억원의 예산을 투입, 다양한 축산 시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군은 축산업을 지역경제를 견인할 주축들로 삼기 위해 지난달 조직개편을 실시, 기존 '축수산과'를 '축산과'로 개편했다.

함평군의 주요 축종인 소(한·육우, 젓소) 사육 두수는 지난해 말 기준 5만4천여 두이며, 이는 도내 22개 시·군 중 5위권에 이르는 수치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함평의 주요 가축(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1,496농가)의 조수입은 9,902억원으로 경영비를 제외한 농가당 연평균 소득액은 약 1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 임근군차 월평균소득(327만1천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함평군이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다.

이에 군은 축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함평=김광훈기자

무안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도

무안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도시지역의 귀농·귀촌인 등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으로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건물을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최대 2억), 대수선

(최대 1억)을 할 때 지역 농협을 통해 저금리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중에 고를 수 있다. 아울러 취득세액 최대 280만원 면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40세(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 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대상사업 신청은 3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건축과(☎061-450-574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2년 사업 연장자는 8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무안군의 인구유입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 팔금면 '풍요기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신안군 팔금면에서는 지난 2월 5일 주민과 관광객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열었다.

2016년 정월대보름을 시작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팔금면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사회단체가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 여파를 거치면서 힘들었던 시간은 잊고 한 해의 대풍년 및 대풍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높이 15m, 둘레 31m 크기의 달집을 만들었으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쥐불놀이와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각자의 소박한 염원을 소원지에 담아 타오르는 달집을 보며 가족들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했다.

주민자치회장 강정근은 "주민의 안녕과 발전을 바라며, 잊혀 가는 고유의 세시풍속을 재현해 조상들의 얼과 송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시 청호고가교 교량 신축이음장치 보수 공사 추진

오늘 사고 예방 위해 신축이음 보수, 일부 차선 통제



목포시는 9일 청호고가교(석현동 1100-2일원) 신축이음장치 부분이 노후 및 파손됨에 따라 이를 긴급 보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노면 파손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이 초래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파손 부위를 아스콘으로 응급복구한데 이어 즉시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에 청호고가교 교량 신축이음장치 파손을 확인했다. 교량 신축이음장치는 교량의 상판을 서로 연결하는 구조물로, 기온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상판을 안전하게 잇는 역할을 하는 교량부속물이다.

시는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출근시간대를 피해 오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보수 공사를 실시해 오후 5시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차선(하나로마트→목포미래병원, 2차로)이 통제된다.

청호고가교는 석현동 라송센트럴카운터 3차와 목포 농수산물유통센터(하나로마트) 사이에 위치한 교량으로 연장 280미터, 폭 35미터로 1998년 준공된 교량이다. 목포=기동희재본부

영암군, 맥류 생육재생기 이후 비배관리 '지금이 적기'

영암군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관내 맥류 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생육재생기 이후 비배관리를 위한 현장기술지원에 나섰다.

생육재생기에는 월동 후 기온상승에 따라 맥류의 새로운 잎과 뿌리가 증가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웃거름 사용으로 수당립수를 증가시키고 생육 후기까지 비효 지속기간을 연장하여 등숙율을 좋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암군 맥류 생육재생기는 1월 이상고온으로 전·평년보다 이른 2월 6일로 판단되며, 이 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웃거름을 줘야 효과적이다. 웃거름 적정량은 밀·겉보리·쌀보리의 경우 10a당 요소 10kg, 맥주보리는 요소 4~7kg 이다. 단, 사질토양 또는 습해 등으로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따른 맥류 생육재생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적기 웃거름 사용으로 고품질 맥류 생산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